

건강 칼럼

여름철 불청객 질염·방광염 주의보

본격적인 여름철이 시작되면서 여성 건강을 위협하는 질염과 방광염에 대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권정희

권정희제이여성의원 원장

질염과 방광염은 여성들이 가장 흔하게 경험하는 질환 중 하나로 꼽힌다. 특히 여름철에는 외부 환경 변화와 생활 습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관련 증상을 호소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우가 많다.

방광염 역시 여성들에게 빈번하게 발생하는 질환이다. 방광염은 세균이 요도를 통해 방광으로 침투해 염증을 일으키는 질환으로, 여성은 남성에 비해 길고 넓은 방광 구조로 인해 여성 생식기 주변 환경이 쉽게 자극을 받을 수 있다.

과도한 질 세정제 사용 역시 주의해야 한다. 청결을 위해 지나친 세정을 반복할 경우 오히려 질 내부의 정상 균총이 파괴돼 감염 위험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사회활동 증가와 스트레스, 수면 부족 등으로 인해 젊은 여성층에서도 질염과 방광염 재발 사례가 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반복되는 증상을 단순히 피로 때문이라고 생각해 방치하는 경우가 적지 않지만, 재발 원인에 대한 정확한 평가와 관리가 필요할 수 있다.

독자제언

한국전쟁을 기억하며 우리가 해야 할 일

매년 6월 25일이 되면 우리는 6.25 한국전쟁을 다시 떠올리게 된다. 전쟁의 참혹함을 직접 경험한 세대는 점차 줄어들고 있지만,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와 번영이 수많은 희생 위에 세워졌다는 사실만큼은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에게 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미래 세대에게 6.25전쟁의 역사적 의미를 올바르게 알리고, 나라사랑의 정신을 계승하는 것이 우리의 중요한 책임이다.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독일 철도 통신 시스템 마비, 전국 열차 운행 중단



독일 철도 통신 시스템(GSM-R) 마비로 전국의 모든 열차 운행이 중단된 23일(현지 시간) 슈투트가르트 승강장에서 묵인 여행객들이 열차 운행 재개를 기다리고 있다.

사설

동행 2인전 '시선이 머문 곳'

2026년 '동행 2인전 - 시선이 머문 곳' 전시회가 6월 5일부터 11일까지 전북예술회관 1층 기스라 2실에서 열렸다.

2022년 '전북예술회관 개인전 산책 4회', 2023년 '전북 도청 갤러리 동반 작가전 산책 stroll', 2024년 '전북예술회관 동행 2인전 나들이, 정원', 2025년 '전북 도청 갤러리 동반 작가전 2회 일상 daily life, walking' 등을 전시했다.

미국·이란의 종전 협정

전 세계를 뒤흔든 미국과 이란의 협정이 106일 만에 일단락됐다. 6월 19일 양국이 예정대로 만나 양해각서에 서명했다.

이런 양해각서 합의는 완전한 종전을 향한 첫 단추다. 아직 양해각서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양측은 정식 서명 후 60일간 분쟁을 진행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전했다.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 '지름길'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jmaeil.com

사내·외기고 및 칼럼은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전주매일 독자 여러분의 의견이 담긴 기고와 투고를 기다립니다. (우)560-912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 568-80 송주빌딩 4층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 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행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